

##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시 업<sup>†</sup>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김 지 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원조교제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일본 사회에서도 원조교제는 범죄 행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전까지 법적인 제재에 관한 논란이 무성한 실정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이 미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원조교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원조교제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를 분석, 향후 원조교제 대처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했다.

주제어 : 청소년, 원조교제, 매매춘, 사회문화적 구성

서울경찰청의 “2000년 원조교제 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원조교제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112명(구속, 49명)이나 되었으며, 검거된 남성들의 연령에 따른 비율을 보면 30대가 48.5%(48명), 20대가 29.3%, 40대가 14.1%, 10대가

7.1%, 60대가 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8.9%, 전문직 종사자가 7.0%, 자영업자가 20.2%, 무직이 17.2%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10대 소녀 58명의 나이는 여고 2-3학년인 17세가 34.5%(20명)로 가장 많았고,

---

<sup>†</sup> 교신저자 : 김시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442-760),  
e-mail mind@kuic.kyonggi.ac.kr

18세가 25.9%, 15세가 13.8%, 16세가 10.3%, 14세 이하가 16.1%로 분포되었으며, 이들 중학생이 65.6%(여고생, 46.4%; 여중생, 19.0%)나 되었다(한국일보, 2000. 7. 13).

이와 같은 실태보도는 원조교제 사범의 검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원조교제는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한정된 자료에서 원조교제는 주로 20, 30대의 회사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과 같은 정상적인 성인 남성과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여중생이나 동일 연령층의 10대 소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조교제가 어느 정도나 일반화된 사회현상일지는 차치 하고라도 우리사회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성인 남성과 소위 부정적인 사회환경에 가장 덜 오염 된 세대라고 생각해온 10대의 어린 소녀가 돈, 물질적 지원, 성 등을 매개로 하여 일탈적인 남녀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다.

최근에는 원조교제에 깊이 빠진 소녀가 원조교제 대상자인 남성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원조교제 포주’를 하다가 적발되고, 원조교제 남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임신을 가장하여 낙태비용으로 돈을 가로챈다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관계를 갖는 ‘계약 원조교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이 30대 이상의 성인여성과 관계를 갖는 ‘역원조교제’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원조교제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는 없지만 원조교제는 여러 매체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구성원들도 원조교제를 일반화된 형태의 청소년의 일탈행위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책은 ‘매체를 통한 충격적인 보도’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조교제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거의 귀가시키거나 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쉼터에서 며칠 지내는 정도의 대응을 하며, 이에 반해 성인 남성들의 경우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하고 있으나 역시 적발되어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50%로서, 이는 전체 형사사범 기각률 13.7%에 비해 거의 4배나 높은 편이다(동아일보, 2000. 7. 20).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여성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나이,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개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신상공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 뒤,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와 시·도청사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며(조선일보, 2000. 10. 4), 원조교제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입건하지 않고 거의 귀가조치 등으로 처리했으나 검찰 당국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서 재활센터나 소년원 등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선일보, 2000. 10. 23).

청소년 원조교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최근에만 비로소 확정, 실행되었고 이러한 실행을 두고 사회적 논란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이는 원조교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원조교제에 대해 서로 좋아하는 남녀간의 교제로 보는 시각과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파렴치한 성범죄, 매매춘의 변형으로 보는 두 개의 시

각이 공존하기 때문인 것이다.

원조교제를 남녀간의 교제로 본다면 원조교제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이다. 반면에 이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미성년 매매춘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원조교제를 미성년 매매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탈선 청소년과 성인의 부적절한 연애 관계로 볼 것인가, 또한 미성년 매매춘으로 본다면 미성년 매매춘은 어느 정도의 중한 범죄인가의 문제가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원조교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조교제 대처방안의 기본적 연구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원조교제의 시발지인 일본에서의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본, 한국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원조교제와 매매춘과의 관계, 원조교제의 사회적, 개인내적 원인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원조교제의 행태,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관계성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는 청소년들의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원조교제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고, 원조교제에서 비난의 대상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식의 내용에 따라 원조교제에 대한 대처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원조교제와 매매춘

일본의 언론은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아무런

재고없이 사용함으로써 원조교제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매매춘의 제공자인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종래의 매매춘과 구별되면서 매매춘으로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즉 원조교제를 하는 소녀들은 언뜻 보기에 극히 평범한 보통의 소녀들이고, 또 그녀들은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몸을 파는 것에 의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도 없다고 한다(菊島 充子, 松井 豊, 福富 護, 1999).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과 언론의 원조교제에 대한 흥미위주의 보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원조교제를 ‘특이하고 문란한 요즘 아이들의 일탈’ 정도로 왜곡시키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매스컴에 등장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는 ‘계약애인’을 맺는 성풍조를 나타내는 용어였지만 90년대 중반이 되자 원조교제는 ‘여고생이나 여중생이 금품을 매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조교제는 성적 행위를 동반하던지, 데이트만 하던지 간에 금품과 청소년의 성적 매력이 교환되는 것이어서, 이는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매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원조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실태나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고 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조교제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宇井 美大子, 福富 護, 1998).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 법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조교제의 원조(元祖)격인 일본 사회에서도 원조교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상충하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에게 성을 파는 현상은 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를 통틀어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나 ‘원조(援助)해

주는 교제'라는 명칭으로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성을 파는 이 특이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것이다.

1996년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중고생들(1,291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원조교제의 경험자는 여고생이 4.0%, 여중생이 3.8%였다. 미오코(宇井 美大子)와 마모루(禮富 護)(1998)는 원조교제를 단순히 현재 여고생들 사이의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매매춘의 저연령화, 어린이 매매춘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이면서 어린이인 여자 중고생들의 인권 옹호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1997년 3월에서 4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고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여고생들은 원조교제의 정의를 '금품을 매개로 남성과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이 '차를 같이 마시는 것에서 섹스를 하는 것까지'로 원조교제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차이에 관해 여고생들은 원조교제는 섹스를 하지 않고도 성립하고, 섹스를 하는 경우에도 원조교제는 여중고생이 하는 것이며, 매매춘은 성인끼리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또한 매매춘은 일회성 관계지만 원조교제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宇井 美大子, 禮富 護, 1998).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본 여중고생들이 원조교제를 매매춘과 몇가지 특성에서 다르다고 인식할지라도 금품을 매개로 남성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핵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매매춘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행동과 현상에 있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 그 속성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Danziger, 1997). 따라서 원조교제라는 명칭의 사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원조교제의 매매춘

으로서의 본질을 왜곡되게 인식시켰고 평가에 있어서 원조교제는 매매춘만큼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심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원조교제의 현상과 원조교제를 보는 시각을 보도하는 언론의 내용이나 평론이 가지는 또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논의의 초점이 사는 쪽인 남성들보다는 한결같이 파는 쪽인 소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매매춘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진정한 성교육은 매매춘을 하거나 원조교제를 하는 남성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을 취재한 한 기자에 의하면 남성들은 원조교제와 연애를 혼동하고 있다고 한다(菊島 充子, 松井 豊, 禮富 護 1999). 즉 남성들의 시각에서 원조교제는 매매춘이라기 보다는 돈이 필요한 십대들을 도우면서 즐길 수 있는 연애의 일종인 것이다. 원조교제를 연애로 보는 남성적 시각은 남성들이 성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을 간과하게 만듦으로서 계속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 원조교제의 원인

### 청소년의 성의식

매매춘이나 성적 비행에 빠지는 소녀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가 문제시된 것은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죄책감이 없고 원조교제를 하는 소녀들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소녀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십대들의 행동기저에는 자신의 성행동은 부모의 제재없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성이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의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와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정과 부모의 변

화도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의 총무청 청소년 대책본부에서 위탁받아 청소년 환경문제 조사연구회(島正見, 1997에서 재인용)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생의 50% 이상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과 섹스해도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섹스를 찬성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상대를 사랑해서 섹스를 한다’는 응답보다는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섹스에 대한 허용의 기준이 ‘사랑’보다는 ‘본인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중, 여고생이 모르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해서는 안된다’가 ‘해도 된다’보다는 조금 많았다. 그러나 ‘문제지만 본인의 자유’라는 응답과 ‘해도 된다’는 응답을 합하면 여중생의 40%, 남자 중학생의 50%, 여고생의 50%, 남고생의 60%가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모르는 사람과의 섹스라도 가능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의 배경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중, 여고생이 모르는 남성과 섹스를 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응답은 위의 ‘모르는 사람과의 섹스’에 대한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중고생의 성의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남성과 여성간의 성차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성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러한 성행위를 ‘사랑’이라고 정당화하던 종래와 달리 ‘자유’가 성을 정당화하는 개념이 되었다. ‘자유’에 바탕한 성의식은 상대와 합의한 성행위, 모르는 사람과의 즐기는 성행위, 돈을 받고 하는 성행위,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것은 ‘사랑=인격

=성’이라는 등식에서 ‘자유=인권=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성립을 말하는 것으로 성을 통제하는 실제적인 윤리는 상실되는 것이다(島正見, 1997).

성의 상품화에 대한 고교생들의 의식과 태도를 평범한 중고교생과 복지원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고교생들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는 보호군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커피숍에서의 이야기 하기(36.7%), 모르는 사람과의 섹스(31.9%), 교복팔기(22.2%), 속옷팔기(19.6%), 포르노 잡지모델(9.7%), 성인비디오 모델(9.0%)순으로 용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통군에서는 커피숍에서 이야기 하기(30.8%), 교복팔기(24.3%), 속옷팔기(10.1%), 모르는 사람과의 섹스(3.3%), 포르노잡지 모델(2.9%), 성인비디오 모델(1.4%) 순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보호군의 학생들의 응답율을 보면,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과 섹스하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內山純子, 1997). 이는 보호군의 학생들의 성의식이 지극히 개방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가 천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지금의 학생들은 성의 상품화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섹스를 하여 댓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보호군의 51.3%와 일반군의 70.5%가 부끄럽다고 응답했고, 반대로 보호군의 46.3%와 일반군의 20.7%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한 돈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일반군에서 4.6%, 보호군에서 13.4%로 나타났다(內山純子, 1997). 매매춘 자체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매매춘에 허용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절반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에 있어서도 삼분의 일 가량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사회적 낙인

한국 청소년 연구원에서 1990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어른들이 청소년의 사고방식이나 탈선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식을 둔 30대, 40대, 50대의 부모 50% 이상이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충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10대 자녀들의 성관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모가 60%를 넘는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탈선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짐작케 한다.

일탈을 사회적 낙인의 결과로 본 Becker(1963)는 일탈적 행동에 의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일탈자 자신이 자신의 일탈적 지위와 역할을 수락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self-image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녀들의 가출이나 성경험 등은 주위 사람들-부모와 선생-의 낙인에 의해 소녀를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만든다. 이는 여학생들과 남학생의 비행행동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 기준에서도 드러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여학생의 흡연, 성경험, 외박의 비행행동을 남학생보다 더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 여학생의 처벌과 비난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00년 1월 19일자 강원도민신문(가죽도 등돌린 윤락소녀들 갈곳이 없다)에 따르면 원조교제를 해 온 가출소녀 3명이 경찰에 잡혀 귀가조치하려 했으나 해당 가정마다 '우리도 포기한 아이'라며 인수를 거부했다. 아직도 딸의 이성교제는 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80% 이상의 부모들이 10대의 임신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한승희, 1990) 한국의 현실에서 성적 탈선을 경험한 소녀들은 더욱 궁지에 몰린다. 일차, 이차 비행을 통해 공개적으로 혹은 묵시적

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소녀'라는 공적 Identity를 형성한 소녀들은 매매춘을 하나의 좋은 직업으로 간주하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재밌어요, 자부심 느껴요. 나쁜일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지만 친구나 후배들이 향락산업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 주는 일에 대해서는 꺼려한다. 또한 끊임없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고 싶어하지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닫는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비행소녀의 성차 및 성역할에 대한 연구를 보면 폭행, 아르바이트, 약물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비행에서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집단의 비행정도가 덜 보수적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지위비행, 가학성 성비행의 경우, 성차별의 경험과 관계가 높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소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젊음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을 남성에게 팔고 돈을 가진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는 매매춘의 바탕에 깔린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성차별이 심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가정 안에서 내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경험은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매매춘 이전에 가진 성경험이 매매춘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의 이면에는 '이왕 버린 몸이니 돈이나 벌자'는 순결 이데올로기적 체념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강영수, 1988).

결국 청소년의 원조교제는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매매춘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각종 언론의 무분별한 '원조교제'라는 용어의 남발로 인해 원조교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새로운 사회현상처럼 오도되었으나 원조교제는 결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의 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원조교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심각성과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원

조교제는 근절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논문에서는 향후 연구의 기본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다.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원조교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원조교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원조교제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원조교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방 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에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해, 자율학습 시간에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중학생은 총 1478명(남 1036명, 여 442명), 고등학생은 총 2101명(남 650명, 여 1451명)으로 총 3579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모두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만 13세이고 고등학

생의 평균연령은 만 16세였다.

### 결 과

#### 원조교제의 행동의미

중, 고등학생들에게 원조교제가 남녀가 만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표 1). 응답결과,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도 중, 고등학생 안에서도 남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원조교제에는 성관계가 개입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원조교제의 의미를 ‘차나 식사, 영화를 같이 보는 것’ 뿐 아니라, 성관계까지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조교제와 매매춘

원조교제와 매매춘을 비교해서 지속성의 여부, 수입의 차이, 서로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

표 1. 원조교제 행동의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학생			고등학생			총 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차/식사/영화	75(7.3)	23(5.2)	98(6.7)	21(3.2)	28(1.9)	49(2.3)	147(4.1)
차/식사/영화/키스나 포옹	108(10.5)	22(5.0)	130(8.8)	42(6.5)	68(4.7)	110(5.2)	240(6.7)
차/식사/영화/키스나 포옹/성관계	848(82.2)	394(89.8)	1242(84.5)	587(90.3)	1355(93.4)	1942(92.5)	3184(89.2)
총 계	1031	439	1470(100)	650	1451	2101(100)	3571(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14.357^{**}$			$\chi^2=6.420^*$			
중,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47.673^{**}$						

\* p < .05, \*\* p < .01

표 2.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차이점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원조교제는 일시적 일탈행위/매매춘은 지속적 직업	396(38.7)	195(48.5)	591(41.5)	301(46.8)	751(52.9)	1052(51.0)	1643(47.1)
원조교제는 용돈정도의 돈 /매매춘은 많은 돈	195(19.1)	71(17.7)	266(18.7)	82(12.8)	116(8.2)	198(9.6)	464(13.3)
원조교제는 애정이 개입 /매매춘은 애정이 없음	119(11.7)	40(10.0)	159(11.2)	87(13.5)	105(7.4)	192(9.3)	351(10.0)
원조교제는 합리적 행위 /매매춘은 의무적 행위	178(17.4)	63(15.6)	241(16.9)	139(21.6)	397(27.9)	536(26.0)	777(22.3)
원조교제는 성행위가 가끔 /매매춘은 성행위가 항상	134(13.1)	33(8.2)	167(11.7)	34(5.3)	52(3.6)	86(4.1)	253(7.3)
총 계	1022	402	1424(100)	643	1421	2064(100)	3488(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14.106^{**}$			$\chi^2=40.461^{**}$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168.597^{**}$						

\*\* p < .01

위인가의 여부, 항상 성관계가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은 ‘원조교제가 일시적 일탈행위이지만 매매춘은 지속적인 직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원조교제가 서로간의 합의하에 하는 행위’임에 반해 ‘매매춘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표 2).

결과를 보면 중, 고생 집단간 차이와 남녀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원조교제를 ‘매매춘에 비해 일시적 일탈 행위’로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원조교제를 일시적 일탈 행위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중학생 집단은 ‘원조교제가 돈의 액수에 있어 매매춘과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고등학

생 집단은 ‘원조교제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에 반해 매매춘이 의무적 행위’라는 항목에 중학생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비교에 있어서 원조교제가 더 나쁜 행위인가, 매매춘이 더 나쁜 행위인가에 대해 중, 고등학생들은 ‘둘 다 나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3). 그러나 중, 고등학생 집단 공통적으로 여학생들이 ‘둘 다 똑같이 나쁘다’는 응답을 남학생보다 많이 하고 있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매매춘을 원조교제보다 더 해악적인 것으로 보았다. 성별간의 차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했다. 고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간의 차이도 유의미했는데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서 원조교제를 매매춘보다 더 해악적으로 보거나 혹은 둘 다 나쁘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반해



표 3.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비교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원조교제가 더 나쁘다	128(12.5)	66(15.6)	194(13.4)	142(22.1)	267(18.5)	409(19.6)	603(17.1)
매매춘이 더 나쁘다	207(20.3)	33(7.8)	240(16.6)	89(13.9)	115(7.9)	204(9.8)	444(12.6)
둘다 똑같이 나쁘다	473(46.3)	267(63.0)	740(51.2)	292(45.5)	906(62.7)	1198(57.4)	1938(54.9)
둘다 나쁘지 않다	65(6.4)	10(2.3)	75(5.2)	47(7.3)	58(4.0)	105(5.0)	180(5.1)
모르겠다	148(14.5)	48(11.3)	196(13.6)	72(11.2)	99(6.8)	171(8.2)	367(10.3)
총 계	1021	424	1445(100)	642	1445	2087(100)	3532(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57.897^{**}$			$\chi^2=61.805^{**}$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80.482^{**}$						

\*\* p < .01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매매춘이 원조교제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매매춘과 원조교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누가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와 고등학생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했다(표 4). 여중학생과 여고생들은 남자 중학생

표 4. 어떤 사람이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응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매매춘하는 성인남성	276(27.9)	86(20.6)	362(25.8)	118(19.1)	246(18.5)	364(18.7)	726(21.7)
매매춘하는 어린 여성	133(13.5)	33(7.9)	166(11.8)	55(8.9)	58(4.4)	113(5.8)	279(8.3)
매매춘하는 성인여성	74(7.5)	19(4.6)	93(6.6)	43(6.9)	33(2.5)	76(3.9)	169(5.0)
원조교제 하는 성인남성	417(42.2)	242(58.0)	659(46.9)	348(56.2)	922(69.5)	1270(65.3)	1929(57.6)
원조교제 하는 어린 여성	65(6.6)	27(6.5)	92(6.5)	31(5.0)	50(3.8)	81(4.2)	173(5.2)
원조교제 하는 성인여성	23(2.3)	10(2.4)	33(2.4)	24(3.9)	18(1.3)	42(2.1)	75(2.2)
총 계	988	417	1405(100)	619	1327	1946(100)	3351(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33.207^{**}$			$\chi^2=61.735^{**}$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122.957^{**}$						

\*\* p < .01

들이나 남자 고등학생들보다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남성이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자 중학생들은 '매매춘하는 성인 남성'과 '매매춘 하는 여성'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두 항목에서 여자 중학생들보다 높은 반응치를 보였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간에 있어 '매매춘하는 성인남성'과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 남성'의 두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매매춘하는 성인 남성'들이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원조교제하는 성인 남성'들이 더 나쁘다고 응답했다.

**원조교제의 원인**

원조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표 5). 그러나 성별간의 차이는 유의미했는데 중학생 집단에 있어서 여중생들은 남자

중학생보다 돈 때문에 10대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한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 이에 반해 10대 여성들도 '섹스를 즐기고', '재미를 위해 원조교제를 한다'는 응답은 여중생보다 남자 중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고등학생 집단에 있어서도 성별간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응답내용을 보면 중학생 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여학생들은 10대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항목에 남학생보다 많은 응답을 한데 반해 남학생들은 '섹스를 즐기기 위해 원조교제를 한다'는 항목에 있어서 여학생보다 많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도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했는데, 돈 때문에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는 응답에서 고등학생들의 반응비율이 중학생들보다 높았다.

성인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에 대해 고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 있어서 성별간에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6). 남자 고등학생들은 주로 성관계에 초점을 두고, '섹스 때문에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중학생

표 5. 10대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에 대한 반응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단순한 재미	76(7.3)	9(2.0)	85(5.8)	27(4.2)	48(3.3)	75(3.6)	160(4.5)
돈 때문에	792(76.5)	413(93.4)	1205(81.5)	538(83.9)	1340(92.7)	1878(90.0)	3083(86.5)
섹스 때문에	92(8.9)	6(1.4)	98(6.6)	47(7.3)	34(2.4)	81(3.9)	179(5.0)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59(5.7)	10(2.3)	69(4.7)	24(0.3)	15(1.0)	39(1.9)	108(3.0)
외로운 성인 남성을 위로하기 위해	17(1.6)	4(0.9)	21(1.4)	5(0.8)	8(0.6)	13(0.6)	34(1.0)
총 계	1036	442	1478(100)	641	1445	2086(100)	3564(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61.545^{**}$			$\chi^2=50.910^{**}$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57.313^{**}$						

\*\* p < .01

표 6. 성인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단순한 재미	235(23.0)	163(37.5)	398(27.3)	130(20.4)	458(32.7)	588(28.9)	986(28.2)
여성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77(7.6)	29(6.7)	106(7.3)	62(9.7)	54(3.9)	116(5.7)	222(6.4)
섹스 때문에	481(47.1)	165(37.9)	646(44.4)	372(58.3)	682(48.7)	1054(51.7)	1700(48.7)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196(19.2)	76(17.5)	272(18.7)	68(10.7)	194(13.9)	262(12.8)	534(15.3)
외로운 어린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	32(3.1)	2(0.4)	34(2.3)	6(0.9)	12(0.8)	18(0.9)	52(1.4)
총 계	1021	435	1456(100)	638	1400	2038(100)	3494(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39.259^{**}$			$\chi^2=60.894^{**}$			
중,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44.380^{**}$						

\*\* p < .01

들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여자 중학생들은 ‘단순히 재미 때문에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 항목에서 남자 중학생보다 많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남자 중학생들은 ‘섹스 때문에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는 항목에 여중생들보다 높은 반응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섹스 때문에 성인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는 항목에 더 많은 응답치를 보이는 반면 중학생들은 ‘외로움 때문에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할 것’이라는 항목에 고등학생들보다 높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다.

원조교제의 증가의 책임에 대해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들은 모두 ‘사회의 책임’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치를 나타냈으며, 두 집단간의 차

표 7. 원조교제의 증가에 대한 책임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개인의 책임	335(32.4)	141(32.5)	476(32.4)	176(28.1)	391(27.9)	567(28.0)	1043(29.9)
사회의 책임	344(33.3)	172(39.6)	516(35.2)	275(43.9)	716(51.2)	991(48.9)	1507(43.1)
가정의 책임	313(30.3)	114(26.3)	427(29.1)	144(23.0)	283(20.2)	427(21.1)	854(24.4)
학교의 책임	42(4.0)	7(1.6)	49(3.3)	31(5.0)	10(0.7)	41(2.0)	90(2.6)
총 계	1034	434	1468(100)	626	1400	2026(100)	3494(100)
성별간의 차이검증	$\chi^2=10.699^*$			$\chi^2=44.591^{**}$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검증	$\chi^2=71.069^{**}$						

\* p < .05, \*\* p < .01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사회의 책임 항목에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더 많은 응답치를 보였고, 그에 반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응답치를 보인 것은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라는 항목이었다. 남녀 집단간 차이에 있어, 여중생들은 남자 중학생들보다 ‘원조교제를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는데, 이러한 형태는 여고생들과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1990년대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어 논쟁이 분분한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원조교제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이중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데 이는 여성에 관한 시각과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학생과 성인 남성에게 대한 처벌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원조교제의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사실과 그 미성년이 성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의 성보호라는 가치와 매매춘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간과한다면 원조교제를 한 여학생들은 돈 때문에 남성을 유혹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가해자인 것이다. 반대로 남성들은 한국 사회적 가치로서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실수한 피해자들이다. 이같은 남성 중심적 입장은 그간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서도 잘 드러난다.

범죄는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 즉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합의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나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은 원조교제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조교제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은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본작업이다. 본 연구는 원조교제의 논란 가운데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조교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유사성과 차이점, 원조교제의 원인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원조교제가 남녀가 만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 했는데,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보다 원조교제에는 성관계가 개입될 것이라는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원조교제의 의미를 ‘차나 식사, 영화를 같이 보는 것’ 뿐 아니라, 성관계까지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 성별을 막론하고 원조교제의 의미를 가벼운 데이트에서 성관계까지로 폭넓게 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원조교제가 매매춘과 다른 종류로 혼동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원조교제와 매매춘을 비교해서 지속성의 여부, 수입의 차이,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인가의 여부, 항상 성관계가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은 원조교제가 일시적 일탈행위이지만 매매춘은 지속적인 직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원조교제가 서로간의 합의하에 하는 행위임에 반해 매매춘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식속에서 원조교제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쯤으로 인식된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청소년들은 성적 탈선을 경험한 여중, 여고생들이 성적 탈선의 경험에 의해 자신의 identity가 변화되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낙인찍히면서 지속적으로 향락산업에 종사하게 되는(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악순환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호기심에 의해 원조교제를 시작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원조교제를 일시적 일탈행위로 본다는 응답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원조교제의 한 축인 여학생들이 원조교제의 심각한 후유증을 간과하는 의식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원조교제와 매매춘의 비교에 있어서 원조교제가 더 나쁜 행위인가, 매매춘이 더 나쁜 행위인가에 대해 중, 고등학생들은 둘 다 나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 집단 공통적으로 여학생들이 ‘둘 다 똑같이 나쁘다’는 응답에 있어 남학생보다 반응비율이 더 높았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매매춘을 원조교제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매춘과 원조교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누가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결과에 의하면 여중생과 여고생들은 남자 중학생들이나 남자 고등학생들보다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남성이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자 중학생들은 매매춘하는 성인 남성과 매매춘 하는 여성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두 항목에서 여자 중학생들보다 높은 반응치를 보였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매매춘하는 성인 남성들이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원조교제하는 성인 남성들이 더 나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녀,

중, 고등학생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대상은 원조교제하는 성인 남성이었다. 또한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에 대해서 성인 남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원인은 섹스와 재미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여성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매매춘의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원조교제도 남성들의 물질과 어린 여성의 성이 교환되는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청소년의 성과 돈이 거래되는 청소년 매매춘의 한 형태로 인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원조교제가 증가한 가장 큰 책임을 물었을 때 중, 고등학생 집단 공통적으로 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탈에 관해 같은 청소년들은 그것을 잘못된 사회적 환경에 귀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학생들은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도 비슷하게 응답을 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여학생들이 더 비중을 두는 쪽은 사회의 책임이었다. 어른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행태를 개탄하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원조교제라는 기현상이 성인들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향락중심적, 물질만능적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원조교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원조교제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가고 있고, 문제의 한 축인 청소년들의 원조교제에 관한 의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은 원조교제가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원조교제가 여성의 성과 남성의 돈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원조교제의 매매춘적인

성격을 간과하고는 있으나 원조교제를 일시적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러한 시각의 밑바탕에는 원조교제가 매매춘과 달리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의식을 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원조교제가 매매춘의 일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매매춘과 달리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원한다면 원조교제 상황을 쉽사리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원조교제를 일시적 일탈로 여기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남학생들의 경우, 원조교제를 통해 돈뿐만 아니라 성적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드러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원조교제 경험의 해악성과 매매춘의 비인간성, 성윤리에 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원조교제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청소년층에만 대상이 한정되어 또 다른 원조교제의 한축인 성인 남성들의 의식 조사와 성인 여성들에 관한 의식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의식과 가치관 등을 통해 원조교제와 관련된 심리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적 연구도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영수 (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용산역 주변 매매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시업 (2001). 원조교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엄.  
동아일보 2000. 7. 20일자, 원조교제 구속영장 기각율 50% 넘어.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  
조선일보 2000. 10. 4일자, '원조교제' 성범죄자 인터넷에 신원공개.  
조선일보 2000. 10. 23일자, 상습 원조교제 청소년 입건.  
최상진, 김기범 (1999).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37-150.  
한국일보 2000. 7. 13일자, 원조교제.  
한승희 (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시마 마사 켄 (島正 見) (1997). 青少年을 둘러싼 性文化. 刊政, 111(5), 28-36.  
우이 미오코, 후쿠토미 마모루 (宇井 美大子, 福富 護) (1998). 『援助交際』에 대한 女子 高校生 의 意識. 東京學藝大學紀要 1 部門 49, 93~101.  
우치야마 준코 (内山 純子) (1997). 『援助交際』의 또 한 가지 側面. 青少年問題 44(7), 24-29.  
키쿠시마 미즈코, 마츠이 유타카, 후쿠토미 마모루(菊島 充子, 松井 豊, 福富 護) (1999). 援助交際에 대한 태도-잡지 및 평론의 분석과 대학생의 의식조사로부터. 東京學藝大學紀要 1 部門 50, 47~54.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A Preliminary Study for Socio-Cultural Construction of the Adolescents' Won-Jo-Kyo-Je

**Si-Up Kim**

Kyonggi University

**Ji-Young Kim**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was to explore the attitud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Won-jo-kyo-je which, recently, has been a social issue. The present authors would like to, at first, suggest that it needs to be social consensus about Won-jo-kyo-je as a adolescent's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Nowadays, Won-jo-kyo-je is socially issued and bring into legal problem. Thus, we tried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Won-jo-kyo-je through analysing student's awareness about it and concluded that it is the same as prostitution.

*key words : Won-jo-kyo-je, Sociocultural construction, adolescent, prostitution*

1 차원고 접수일 : 2001. 9. 22.  
2 차원고 접수일 : 2001. 10. 25.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4. 11.